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보가 아니다

〈家寶〉

1면에서 계속

순례하는 동안 신심이 깊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수불 스님이 펼치는 야단법석과 동행하는 분들의 체험담이 그것이다. 아젯밤도 유양시(瀟陽市)의 한 숙소에서 차담을 나누는 동안 안국선원 신도들에게 존경받는 무량심 회장보살의 얘기를 들었다. 회장보살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도 절절했다.

“부유한 부모를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상 물질 몰랐어요. 초승달만 봐도 좋고 별만 봐도 좋았어요. 세상이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결혼하고 3년 뒤부터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몸이 병들기 시작했지요. 모친이 걱정이 되어 사직동 친정집 옆에 새로 집을 지어주었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가 제 얼굴 보려고 그러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보살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다. 남편 거사가 퇴근해 온 저녁때까지 울었다. 옷을 갈아입는 거사의 바지를 잡고 ‘당신한테 오고 나서부터 내가 없어진 것을 오늘 처음 알았으니 나를 찾아내라’며 울었다. 이윽고 남편이 전화를 해 모친이 뛰어들었고, 모친과 남편의 권유로 모친이 다니던 소림사를 오게 되었다. 부처님 일대기나 불교교리를 알고 싶어 처음으로 집에서 법사를 모시고 서른 명이 법회를 가졌다. 나중에는 보림사 법당을 빌려 매주 화요일마다 2년 6개월 동안 공부했다. 그런 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목욕제재하고 6년쯤 새벽기도를 했다. 천일기도를 두 번 하는 동안에는 백일이 지나니 2시 반만 되면 저절로 일어나졌다. 제사를 지내 피곤하여 조금 늦을 때는 문에서 ‘팍!’ 하는 소리가 나 뚝 떨어졌다. ‘누가 나를 깨우는가 보다’ 하고 신바람이 나 10년을 넘게 했다. 낙산사 같은 데서 밤새 기도했다. 저녁에 법당으로 들어가 발뚱뚱 들고 아침예불 때까지 관음

보살을 불렀다.

“발뚱뚱치를 드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3년 정도 지나니 5분만 지나고 나면 몸이 파리똥만한 점이 되어 밤새 그렇게 설 수 있었지요. 저는 그게 선정인 줄 알았어요.”

선(禪)은 자기 이성과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길

회장보살이 수불 스님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알고 지내던 육련화 보살이 범어사 행자복 15벌을 보시할 시주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보살은 시주금을 가지고 범어사 내원암으로 갔다. 마침 내원암에는 수불 스님이 능가 노스님을 모시고 있던 중이었고, 보살은 희유한 꿈을 꾸고 난 뒤부터 가슴이 몹시 답답한 상태였었다. 꿈에 하얀 새가 하늘에서 한 마리 두 마리 날아와 모이더니 무슨 글을 쓰고 나서 보살은 하늘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점지했다.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하고 목이 막혀 잠에서 깨고 가슴이 답답해져 버렸다.

“내원암으로 올라가 스님을 처음 뵈어요. 그런데 스님 몸뚱이에서 흰 우윳빛이 확 나오더니 나를 덮어씌우더라고요. 순간 답답한 게 시원해진 거예요. 그때 스님 하시는 말씀이 보살은 지금까지 절에 다녔지만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살이 알고 있는 불교가 불교인 줄 아니냐 그대요. 시원해진 줄 알았는데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또 어느 한 보살이 지나가는데 말씀하시네요. 저 보살의 머리카락을 탁 보는 즉시 한 울도 틀리지 않고 완벽한 숫자가 나와야 그게 불교이자 불법이라고.”

보살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잠시 후에 일어나 능가 노스님에게 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보살은 다시 내원암으로 찾아가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며 스승 되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스님을 법회 장소인 총무집으로 초대했다.

“화요일 법회 모임의 총무 집에서 겪은 일이지요. 스님을 모시고 부회장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였어요. 총무가 다식이 담긴 과반을 스님 옆에 놔어요. 스님이 포크로 배를 한 조각 찍어 들고는 ‘불법은 별 다른 도리가 아니냐. 바로 이 속에 다 있다. 이거만 알면 다 된다. 이렇게 하는 놈이 무엇인 줄만 알면 다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순간적으로 빈 허공에 비닐 막 같은 것이 짜악 갈라지더니 포크가 포크 아닌 도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막 속에 갇혀 살았나, 그게 착각이었는가 하고 말이예요. 점심을 드시고는 다른 보살 집으로 옮겼는데 스님은 2층 응접실에 계셨고 우리는 아래층에 있었지요. 그 친구가 차를 타러 부엌으로 간 사이에 저는 창문 너머 정원의 작약 꽃봉오리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화산이 터지듯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내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우윳소리가 나는지 나는 목이 달아나는 게 싶어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날아간 줄 알았던 몸뚱이는 그대로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이 몰려와요. 2층으로 올라가 스님께 제가 달라졌단니까 한두 마디 말씀으로 점검하시더라고요.”

보살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파도 넘실넘실 타고 넘을 줄 알고 자기 이성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견성체행 이후의 변화라고 술회했다. 한 생 각 일으키기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인공으로



임제종 황룡파와 양기파의 발원지인 석상사

산다는 뜻이었다.

석상사로 가기 위해 순례자 일행은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일찍 나선 셈이다. 그리고 보니 아직도 호남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형양의 밀인사나 유양의 석상사나 모두 호남성의 절인 것이다. 버스가 석상사 가는 길로 진입하자마자 지체된다. 비 온 뒤의 비포장도로가 엉망이다. 겨우 교행하는 비포장도로인데, 어디선가 고장 난 차가 길을 막고 있어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스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야단법석을 편다. 석상사도 꿈에 보았다고 하신다. 꿈속의 석상사는 절 앞으로 불소리가 날 정도의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꿈이 맞다면 전생에 한 번 왔던 인연일 거라며 순례자들의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이 길이 과거에는 강서 호남을 잇는 대표적인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원오심요>를 공부했지만 원오 스님도 양자강의 배를 타고 사천성으로 왔다 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걸어서는 장가계족 협산사에서 장사로 내려와 강서로 갈 적에는 이쪽 길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양 석상사에서 주무시고 강서의 백장사, 황벽사를 넘어서 진여선사로 넘어가는 일정을 택한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큰스님들이 동서를 왕래할 적에 이 길을 많이 이용하였을 텐데 지금 우리도 이 길을 지니고 있어 감회가 좋습니다.”

동산 선사를 아홉 번 참방했던 설봉의 간절한 구도심

과거의 큰스님이란 당연히 덕산선사 회상의 암두와 설봉도 포함될 것이다. 스님은 암두 스님과 설봉 스님의 기연(奇緣)까지 법문하신다. 덕산 선사가 말년에 상좌로 맞이하신, 천재적인 소양을 지닌 암두

는 설봉보다 6살이 적었지만 호남성 오산전에서 설봉을 크게 깨치게 했다고 한다. 당시 설봉은 덕산선사를 찾지 전에 투자를 세 번, 동산을 아홉 번 참방한 바 이틀 삼도투자 구지동산(三到洞山 九至洞山)이라 했는데, 동산과 투자산까지는 무려 5000 리나 되는 먼 거리였다고 하니 설봉의 간절한 구도의지가 어땠는지 짐작이 된다. 특히 동산 밑에서는 삼십대 중반까지 공양주 소임을 지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빠져서 자기정진을 놓치지 않으려는 근기를 내보였던 것이다. 다음은 그때의 일을 보여주는 선회다.

설봉이 공양주(飯頭) 소임을 보면서 쌀을 이는데 동산 스님이 다가와 물었다. “모래를 일어 쌀을 걸러내느냐, 쌀을 일어 모래를 걸러내느냐?” “모래와 쌀을 다 걸러냅니다.” “그러면 대중은 무엇을 먹으라고?” 설봉이 대답 대신 쌀 쟁반을 얹어버리자 동산 스님이 말했다. “나의 인연을 보건대 덕산(德山)에 있어야만 하겠어.”

수불 스님은 이쯤에서 동산 스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평한다. 동산 스님은 공양주가 쌀을 얹어버렸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너와 나의 인연은 이쯤인 것 같다. 네가 나를 믿고 이렇게 찾아와 공부해 온 것은 고맙지만 내가 볼 적에는 너는 덕산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여유를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설봉은 덕산 선사를 찾아가 물었다.

“예부터 내려온 종문에 저도 자격이 있습니까?” 덕산 선사가 몽둥이로 한 대 때리며 ‘뭐라고?’ 하자, 설봉이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다음 날 설봉은 다시 덕산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자 스님이 말했다. “우리 종문에는 말이란 것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줄 그 어떤 법도 없다.” 설봉은 이 말이 크게 사무쳤다. 이후 설봉은 사형 암두와 예주 오산전에 갔다가 눈이 내려 그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고, 그때 암두는 날마다 잠만 자므로

오로지 좌선만 하고 있던 설봉이 어느 날 암두를 부르며 말했다.

“사형! 금생에는 틀렸나 봅니다. 전에 문수란 작자와 행각할 때는 가는 곳마다 그 작자가 귀찮게 굴더니 이번에는 사형이 잠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암두가 ‘악!’ 하고 할을 했다. 그런 뒤 말했다. “잠이나 싹털 자두시오. 매일 선상에 앉아 있는 풀이란 총구석의 토지신 같으니 훗날 사람들을 흘릴 것이요.”

“나는 이 속에 답답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감히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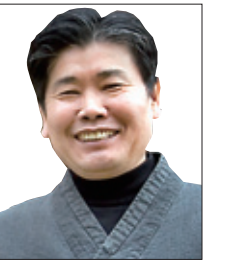
그러하여 설봉은 지금까지 공부해 온 자신의 견처(見處)를 암두에게 하나하나 점검을 받았다. 그러나 암두는 아직 깨달음의 인연이 도래하지 않은 설봉의 견처를 다 부정했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보(家寶)가 아니라 말을 훗날 그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려 한다면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늘을 덮고 땅을 뒤덮을 것이요.”

설봉은 암두의 말끝에 깨닫고 소리쳤다. “사형! 오늘에야 비로소 이곳 오산전에서 도를 이루었소.”

훗날 암두는 뱃사공 노릇을 하고, 설봉은 고향으로 돌아가 1500 대중을 거느리게 되는데 설봉 문하에서 문문종과 법문종이 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버스가 석상사 초입의 산하리를 들어서자, 수불 스님이 버스 안 법문을 마치신다. 버스가 산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고 도는데 산세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다. 이윽고 절의 담에 새겨진 석상사 안내문이 보인다. 배후의 지원으로 창건된 석상사는 당나라 희종이 ‘송승선림(崇勝禪林)’이라 칭했으며 임제종 황룡파와 양기파의 발원지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감회에 젖어 석상사 경내를 둘러보는 스님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